

## 까말라데비(Kamaladevi) 연구\*

— 도전적 젠더 의식과 간디와의 양가적 관계

박 금 표\*\*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까말라데비의 저술과 전기, 그녀에 대한 역사적 평가 등의 문헌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까말라데비가 독립 이전에 개인 생활을 통해 보여준 도전적 젠더 의식과 여러 사회적 제약을 넘어 추진했던 여성운동, 까말라데비에게 미친 간디의 영향 및 양가적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까말라데비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후 과부가 되었으나, 연애 후 재혼했다가 남편의 불륜 등을 계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합법적인 이혼을 했다. 또한 그녀는 지방의회 선거에 여성의 입후보가 가능해지자마자 출마하였는데, 까말라데비의 이러한 행보는 인간적 주체 의식, 젠더의 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한국의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주제어: 까말라데비, 간디, 전인도여성협의회, 젠더 의식, 여성자립, 여성참정권  
Kamaladevi, Gandhi, All India Women's Conference, Gender Consciousness,  
Independence of Women, Women's Suffrage

까말라데비는 AIWC 창립 멤버였으며 이후 사무총장과 부회장, 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그녀는 실질적인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며 노동자와 농민, 여성의 문제를 연계하여 노동의 중요성과 그 결과를 개인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을 때 여성의 진정한 평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전은 기존의 AIWC 회장들의 추상적인 비전과는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1920년대부터 까말라데비는 간디의 사상과 활동에 깊이 공감하여 간디가 추진하는 모든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전면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부터 간디와의 길항관계가 발생했는데, 이는 까말라데비의 사회당 활동과 이혼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말 간디가 까말라데비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갈등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이 확정된 후 까말라데비가 간디에게 분리 독립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으며 더욱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이후 국민회의가 정당으로 전환되는 것을 간디가 반대하였을 때, 이를 지지한 당원은 까말라데비 한 명뿐이었을 것이다. 독립 이후 까말라데비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민간 기구를 설립하여 공여가의 경제적 자립과 인도의 전통 문화 부흥에 남은 생을 바쳤다.

식민통치하 여성으로서 까말라데비는 개인적인 한계와 여성/남성으로서의 구분을 넘어 여성운동과 간디의 정치 활동에 동참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추구하는 도전 정신을 발휘한 인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1. 서론

까말라데비(Kamaladevi Chattopadhyay: 1903-1988)는 남인도 망갈로르의 브라흐만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Ananthaya Dhareshwar)는 지방 행정관이었으며 어머니(Girijabai)는 까르나타카의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까말라데비는 지적이고 개혁적인 배경에서 성장했지만 11세에 결혼하여 13세에 과부가 되었다. 1856년에 과부 재혼법(Widow Remarriage Act of 1856)이 제정되었지만 1900년대 중반까지 실제로 과부가 재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시대에 과부가 되면 제한된 굴레 속에서 남은 생을 사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까말라데비는 1919년에 재혼했고, 재혼한 남편의 방탕한 생활과 불륜이 계속되자, 1933년 11월에 이혼했다.

정치 활동에 나선 까말라데비는 1926년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여성 입후보권이 인정되자마자 출마했다. 또한 1927년 전인도여성협의회(All India Women's Conference, AIWC) 창립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4년 동안 사무총장 직책을 맡아 활동했으며 1944년에는 AIWC 회장이 되었다. 그녀는 서구 제국주의와 서구 개념의 여성해방운동을 비판하는 한편 인도 여성운동과 국제적 단체의 연계를 추구했다.

까말라데비는 간디 사상에 깊이 공감하여 1930년 이후 소금행진(Salt March)을 비롯한 불복종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네 차례나 구속되었다. 그러나 분리 독립하게 된 현실을 개탄하며 독립 이후에는 수공예 부흥 운동과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활동에 주력했다.

까말라데비는 이처럼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사회 활동을 했으나 그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7년에 출간된 『열정적인 삶』(*A Passionate Life*)은 까말라데비가 쓴 글들의 모음집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서문과 후반부의 비평 부분에 까말라데비에 대한 연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20세기 인도 역사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성장했고,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인도의 여성 역사는 확립된 연구 분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까말라데비는 거의 도외시 되고 있다.”<sup>1)</sup>고 기술하고

1) Ellen Carol DuBois and Vinay Lal eds. (2017), *A Passionate Life: Writings by and on Kamaladevi Chattopadhyay*, New Delhi: Zubaan, p. 20.

있다. 까말라데비의 이름이 붙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으나 모두 전기이거나 독립 이후 수공예 부흥 운동에 대한 것들이며 까말라데비의 젠더 의식이나 정치 활동에 대한 연구 혹은 간디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까말라데비의 저술과 전기 그리고 전기를 편찬한 학자들의 평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문헌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까말라데비가 독립 이전에 보여준 도전적 젠더 의식, 사회적 제약을 넘어 활동했던 여성운동 그리고 까말라데비에게 미친 간디의 영향 및 길항 관계를 중심으로 까말라데비의 여성운동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찢또빠다이(Chattopadhyay)라는 까말라데비의 성(姓)을 사용하지 않고 ‘까말라데비’라는 그녀의 이름을 사용하고자 한다. 까말라데비는 끄리슈나 라오와 결혼하여 까말라데비 라오가 되었다가, 하린드라나트 찢또빠다이(Harindranath Chattopadhyay)와 결혼한 후 까말라데비 찢또빠다이가 되었다. 하린드라나트와 이혼한 후에도 까말라데비는 남편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혼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녀의 전 남편의 성이 아닌 ‘까말라데비’의 이름을 논문의 제목과 서술에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 2. 도전적 젠더 의식

### 2.1. 결혼, 재혼, 이혼

까말라데비는 개혁적 사고를 가진 브라흐만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당시에는 조혼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11세에 끄리슈나 라오(Krishna Rao)와 결혼했고 2년 후인 13세에 과부가 되었다.<sup>2)</sup> 하지만 까말라데비가 과부라는 제약 속에 살지 않고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은 시아버지인 수바 라오(Subba Rao)의 덕분이라 할 수도 있다. 맡겨 드리인 까말라데비에게 학업을 계속하게 하고 적당한 사람을 스스로 찾아서 가능하면 재혼하라는 충고도 해주었기 때문이다.<sup>3)</sup> 1917년에 까말라데비는 어머니인 기리자바이와 함께 마드라스로 집을 옮겼다. 이것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과부를 불경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보수적인 망갈로르 지역을 떠나 진보적인 대도시로 이주하려는 기리자바이의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4)</sup>

마드라스로 간 까말라데비는 거기서 극작가로 활동하고 있던 하린드라나트를 만났다. 하린드라나트는 인도 여성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사로지니 나이두(Sarojini Naidu)의 동생이다. 까말라데비의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두 번째 남편인 하린드라나트의 아버지 역시 개혁적 사고를 가진 진보적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까말라데비와 하린드라나트의 연애는 결혼으로 이어졌고 1919년에 전통 혼례 방식이 아닌 시민혼(civil marriage: 市民婚)으로 결혼했다.

1856년에 과부재혼법이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재혼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장된 법이나 다름없었고<sup>5)</sup> 과부의 재혼에 대한 부정

2) 까말라데비와 관련된 초기 기록은 조금씩 어긋나 있다. 까말라데비의 전기 작가인 난다(Reena Nanda)는 까말라데비가 1914년에 결혼하고 1916년에 과부가 되었으며, 1919년에 재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Reena Nanda (2002), *Kamaladevi Chattopadhyaya: A Biography*,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pp. 11-15. 그러나 또 다른 전기 작가인 나라심한(Sakuntala Narasimhan)은 까말라데비가 1917년 인 14세에 22세인 Krishna Rao와 결혼하고 1918년에 과부가 되었으며, 20세가 되기 전에 Harindranath Chattopadhyay와 재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Narasimhan, Sakuntala (1999), *Kamaladevi Chattopadhyay: the Romantic Rebel*, New Delhi: Sterling Publishers, pp. 149-150; p. 237.

3) Sakuntala Narasimhan (1999), p. 149.

4) Jasleen Dhamija (2007), *Kamaladevi Chattopadhyaya*, New Delhi: National Book Trust, India, p. 4.

적인 인식이 강했다. 영국의 경우 종교에 근거한 혼례가 일반적이었으나 1836년의 혼례법(The Marriage Act 1836)에서 시민혼이 처음으로 허용되었다. 영국지배 시기 인도에서 처음으로 시민혼이 인정된 것은 혼인 당사자 중 한 명이 기독교인 경우였다. 그러나 1872년에 혼인특별법(Special Marriage Act)을 제정하여 종교 의례가 아닌 시민혼을 인정했다.<sup>6)</sup> 요컨대 시민혼은 혼인 당사자의 종교가 다르거나 브라흐모 사마즈(Brahmo Samaj)처럼 종교적 사제를 인정하지 않는 개혁 종교 소속의 경우, 혼례를 집전하는 사제 없이 혼례를 거행할 수 있는 법인 셈이다.

그러나 까말라데비와 하린드라나트 모두 힌두이며, 사제를 인정하지 않는 개혁 종교 집단 소속자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혼례를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두 사람이 관습을 넘어선 낭만적 혼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전기 작가도 있다.<sup>7)</sup> 그러나 당시 법적으로는 인정되었지만 과부가 힌두의 전통혼례로 재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민혼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1900년대 이후에도 재혼을 불경한 것 혹은 혁명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음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10년대에 결혼 제도, 과부의 문제점 그리고 재혼하는 여성을 다룬 인디라 사하스라부데(Indira Sahasrabuddhe)의 소설 『고다바리』(Godavari)가 발표되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고다바리는 9세에 결혼하여 과부가 되었고 이후 어린 시절의 친구였던 남성을 다시 만나 재혼했다. 당시 이 소설은 ‘혁명적인 소설’로 평가되었다.<sup>8)</sup> 이처럼 소설 속에 등장하

5) Gull, Raashida (2014), “Of Feminism, Colonialism And Nationalism In India: Drawing A Relationship”,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s* 19(1), p. 122.

6) Nandini Chatterjee (2010), “English Law, Brahmo Marriage, and the Problem of Religious Difference: Civil Marriage Laws in Britain and Indi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52(3), pp. 524-525.

7) Jasleen Dhamija (2007), p. 14.

는 과부의 재혼도 혁명적인 것으로 평가되던 시기에 과부가 된 까말라데비는 실제의 삶에서 하린드라나트와 연애를 하고 재혼을 한 것이다. 그래서 과부인 까말라데비가 전통적 혼례로 재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까말라데비와 하린드라나트는 전통혼례가 아닌 시민혼을 선택하여 재혼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물론 시민혼으로 혼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첫 남편이나 재혼하는 남편의 가문이 어느 정도 개혁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가문이 아무리 개혁적인 사고를 가졌다 하더라도 까말라데비 자신의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까말라데비에게는 재혼 자체도 엄청난 도전 정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까말라데비의 도전 정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까말라데비가 재혼한 남편인 하린드라나트의 아버지인 아그호레나트(Aghorenath Chattopadhyay)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sup>9)</sup> 까말라데비는 결혼 후 이들과 함께 살았으며, 집안의 모든 일들을 시누이인 트리날리니가 주관했다. 결혼 후 몇 달 되지도 않아서 트리날리니는 까말라데비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하린드라나트를 캠브리지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했다.<sup>10)</sup> 까말라데비는 이러한 결정을 하린드라나트가 캠브리지로 떠날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이런 경우,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

8) S. J. Tharu and K. Lalita (1991), *Women Writing in India: 600 B.C.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New York: Feminist Press at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p. 385.

9) 아그호레나트는 하이데라바드 대학 학장을 지냈으며, Sarojini, Virendranath, Mrinalini, Bhupendranath, Sunalini, Ranendranath, Harindranath, Suhasini 등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사로지니는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 국민회의)와 여성단체에서 활동했으며, 비렌드라나트는 혁명가로 해외에서 활동했다.

10) Jasleen Dhamija (2007), p. 15.

이었다. 그러나 까말라데비는 그렇게 평범한 여인으로 있지 않았다. 이 시기에 까말라데비는 간디를 만나 간디의 비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남편이 있는 영국으로 갈 생각으로 귀금속을 팔아서 여비를 마련하여 1921년에 영국으로 갔다. 영국에 머무는 동안 학문적 관심도 있었으나 여러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생들, 정치인 그리고 예술인들을 만났다. 1922년에는 남편과 함께 유럽을 여행하고 인도로 귀국했다.

귀국한 이후 까말라데비는 여성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간디의 불복종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구속되기도 하는 정치활동을 이어갔다. 까말라데비가 하린드라나트와 재혼하기로 했을 때 첫 남편의 아버지인 라오는 하린드라나트의 자유분방한 성향을 우려하여 ‘영국으로 가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충고를 했었다.<sup>1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린드라나트와 결혼함으로써 첫 남편의 시아버지와 우호적 관계가 끝나버렸다. 라오의 우려대로 자유분방한 예술가이며 술을 좋아하는 하린드라나트는 결혼 후에도 그러한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다. 까말라데비와 함께 하린드라나트가 1931년 3월 까라치(Karachi)에서 개최된 국민회의 연차대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하린드라나트는 봄베이(지금의 뭄바이)에서 배에 오를 때부터 술을 많이 마셔서 이목을 끌었고 까말라데비가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으로 보이자 네루가 하린드라나트에 대해 캐묻기도 했다.<sup>12)</sup> 이후 하린드라나트의 알코올 중독과 방탕한 행각이 널리 알려졌다.

1932년 9월부터 1933년 8월까지 까말라데비가 벨가움(Belgaum)의 감옥에 있는 동안 하린드라나트는 오르빈도의 아슈람(Aurobindo Ashram)에 시타(Seetha)라는 여성과 함께 머물고 있었다. 이미 불륜으로 낳은 딸도 있었으며, 까말라데비의 아들 라마는 다른 사람의 손에

11) Jasleen Dhamija (2007), p. 13.

12) Reena Nanda (2002), p. 64.

맡겨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까말라데비가 아들을 만났을 때, 아들은 몹시 쇠약해지고 아픈 상태였으며,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하린드라타트는 ‘짚또빠다이 집안은 원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목청을 돋우었다. 하린드라나트 가문은 지적인 집안이기에 때문에 따로 학교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었지만, 까말라데비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다른 여성에게 한눈을 팔며 아들을 방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

간디의 소금행진에 참여하여 구속되었다가 1933년 8월에 가석방된 까말라데비는 그 해 10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의 이혼 소송은 10월 24일 봄베이 법원에서 열렸는데, 재판부 역시 힌두 여성의 이혼에 대해 우호적 입장이 아니었다. 판사는 이혼 소송의 ‘비공개’ 심리를 거부했고, 까말라데비는 공개 법정에서 자신의 가족생활에 대한 사적인 내용을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비방과 비난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곤욕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까말라데비는 여성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남편의 불륜을 용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기에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혼뿐이었다.<sup>13)</sup> 까말라데비의 이혼 청구 소송은 11월에 확정 판결이 나오르며 법적인 이혼이 완료되었다. 까말라데비의 이혼은 공개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첫 이혼 사례이다.<sup>14)</sup>

물론 까말라데비가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힌두 전통 혼례법이 아닌 ‘시민법’으로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개혁적인 민족주의자들도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하린드라나트

13) Reena Nanda (2002), p. 65.

14) 힌두 여성의 이혼 권리는 힌두 혼인법(Hindu Marriage Act, 1955)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성의 이혼 권리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는 박금표(2020), 「인도 제헌의회 여성의원의 젠더 의식」, 『문화와 융합』 42(11), pp. 484-492 참조 요망.

의 집안에서는 이혼의 책임이 까말라테비에게 있다는 오명을 퍼뜨리기도 했다. 그녀의 전기를 쓴 작가에 따르면 당시 까말라테비와 같이 활동했던 남성들과의 스캔들이 퍼지면서 그녀가 다른 사람과 다시 재혼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까말라테비는 이후 재혼하지 않았으며<sup>15)</sup> 남편 집안의 성인 잣또빠다이를 죽을 때까지 성으로 사용했다. 까말라테비가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함으로써 이후 국민회의는 물론 간디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말라테비는 당시 일부다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절에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감행’하는 도전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결혼관 혹은 자기 주체적 삶을 선택하는 것은 당시의 여성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과부’라는 전통의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연애로 재혼한 것은 물론, 재혼한 남편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이유로 법적인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인간적 주체 의식과 젠더 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한 까말라테비의 도전적 행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2.2. 지방의회 선거

영국 식민지 정부가 인도에 선거제를 도입한 것은 1909년 인도통치법(Government of India Act, 1909)부터이다. 1919년에 인도통치법이 개정되고 지방 자치가 실시되면서 중앙의원에 이어 지방의원도 선출하게 되었다. 이에 여성 대표,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의 선거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919년 통치법 제정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법 제정을 담당했던 것은 사우스버로 참정권 위원회(Southborough Franchise Committee)였다. 그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선거 자격과 입후보 자격에 대한 논의와 결과가 들어 있다. ‘참정권 제안’인 제7항에는

15) Ellen Carol DuBois and Vinay Lal (2017), p. 3.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참정권에 관한 권고안에서 우리는 먼저 선거권자의 일반적 무자격을 규정했으며, 그것은 모든 지방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우리가 수집한 증거를 숙고하여 여성, 21세 미만의 사람, 외국 국민(토후국 제외) 및 정신이 불안정한 자 등을 무자격자로 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안 중 [추후]논의가 필요한 것은 여성의 무자격에 관련된 것뿐이다.<sup>16)</sup>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여성은 참정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위원회 권고안 제8항에서는 많은 여성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무자격자로 규정한 이유는 “책임 있는 투표를 위해 남성 선거권자의 상당수에게 교육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인도 여성들에게까지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받아들였다.”는 것과 “대부분의 계층과 지역 사회에서 여성을 [외부와] 차단하는 풍습<sup>17)</sup>이 완화될 때까지 여성 참정권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참정권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1919년 인도통치법’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의 선거권 부여 여부는 각 지방의회의 재량에 맡겼다. 이에 각 지역에서 여성참정권 부여 여부가 주요 이슈가 되었는데, 마드라스와 봄베이 관구에서 1921년에 처음으로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 1920년대 말까지 대부분의 지방에서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했

16) Southborough Franchise Committee (1919), *Report of The Franchise Committee 1918-1919*, Calcutta: Superintendent Government Printing, p. 3.

17) 차단하는 풍습이란 당시 여성들의 집 밖 출입이 제한되거나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풍습을 일컫는 것이다. 여기서 [ ]안에 있는 것은 원문에 있지 않은 것으로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것을 의미한다. 이후에도 이해를 위해 필자가 삽입한 내용은 [ ]에 넣어 표기한다.

다.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후 첫 선거인 1923년 지방의원 선거에서 봄베이는 여성의 5.03%, 마드라스는 8.46%가 선거권을 가졌다.<sup>18)</sup>

그러나 여성의 선거권과 입후보권이 동시에 인정된 것은 아니다. 여성의 입후보 권리는 마드라스 관구에서 1926년에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까말라데비의 입후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당시 마드라스에서 발행되던 저명한 주간 저널인 『인도 사회 개혁가』(*Indian Social Reformer*)<sup>19)</sup>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1926년 5월 15일자에서는 ‘성별 무자격(sex-Disqualification) 철폐’라는 제목으로 ‘지방의회(Provincial Council)에만 여성이 입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한 달 후에는 의회에 입후보하거나 지명되는 것을 금지하던 조항을 제거했다.’고 보도했다.<sup>20)</sup> 마드라스에서 성별 무자격 철폐가 발표된 것은 선거 실시 5주 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말라데비는 지방의원 선거에 도전했다. 까말라데비가 망갈로르의 사우스 카나라(South Canara) 선거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후 ‘푸른 연꽃 기사단’(Knights of the Blue Lotus)이라는 자원봉사자들과 남편인 하린드라나트가 적극적으로 유세를 도왔다. 자원봉사자들의 이름에 ‘푸른 연꽃’을 붙인 것은 까말라데비(연꽃을 의미함)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로 까말라데비는 낙선했다. 까말라데비의 낙선과 관련하여 “사우스 카나라 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까말라데비는 커즌스(Margaret Cousins)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로 국민회의 후보에게 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드라스 정부가 여성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지방

18) Reena Nanda (2002), p. 24.

19) *Indian Social Reformer*는 1894년부터 1952년까지 매주 토요일에 발행되던 저널이다. S. Natarajan, and K. Natarajan (1894-1952), *The Indian Social Reformer*, Bombay: Kannada Press, Tatva Vivechaka Press. 이후 *Indian Social Reformer*의 출전은 <ISR, 권호, 페이지 번호(연 월 일)>로 표기한다.

20) ISR 36, p. 574(1926년 5월 15일).

의회에 지명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보도가 있었다.<sup>21)</sup> 또한 “사우스 카나라 선거구에서 입후보한 까말라데비는 그녀의 상대인 국민회의 후보에게 패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여성들이 눈에 띄게 진보적인 봄베이에서는 한 명의 여성도 입후보 하지 않았다. 이에 입법의회에 정부의 [여성의] 지명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 했다.<sup>22)</sup>

여기서 ‘요구’라는 것은 마드라스의 힌두 사회개혁 연맹(Hindu Social Reform League)에서 1926년 11월 21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발표한 결의안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 연맹의 결의안의 한 조항으로 ‘정부는 마드라스 입법의회에 여성의원을 지명해주기를 희망하며, 망갈로르의 까말라데비, 마드라스의 락슈미빠띠(Mrs. A. Lakshmi pati)와 무톨락슈미 렛띠(Muthulakshmi Reddy)를 천거한다.’는 항목이 들어 있었다.<sup>23)</sup> 일반적으로 입후보 했다가 낙선한 까말라데비가 지명될 것으로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 지명의석으로 의원이 된 사람은 무톨락슈미 렛띠였다. 까말라데비가 지명되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혁명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는 평가<sup>24)</sup>가 틀리지 않을 것이다.

낙선 이후 까말라데비는 선거 당시의 상황과 낙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겨우 3주 동안 선거운동을 했다. 우리에게 유리한 엄청난 파도가 일었다. 그러나 상대 후보는 경력이 많았고 민족주의를 위해 일하는 국민회의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강한 적수임을 입증했다. 나

21) ISR 37, p. 194(1926년 11월 27일).

22) ISR 37, p. 211(1926년 12월 4일).

23) ISR 37, p. 219(1926년 12월 4일).

24) Reena Nanda (2002), p. 25.

는 51표 차이로 졌다. 이 일이 있던 지 몇 주 만에 나는 설립되고 있던 여성 최고 기구인 전인도여성협의회 조직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sup>25)</sup>

까말라데비는 선거에서는 낙선했지만 이를 계기로 당시의 여성 지도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여성단체 창립에 주요 멤버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전인도교육개혁협의회(All India Women's Conference on Educational Reform) 창립대회에서 사로지니 나이두는 까말라데비를 사무총장으로 천거하면서 “까말라데비의 환상적인 성과는 인도 여성성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 지방에서 실패했지만[낙선], 이제 그것을 온 나라에서 얻게 될 것임을 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sup>26)</sup>

사로지니 나이두가 까말라데비에게 했던 이 말은 현실로 나타났다. 1935년 인도통치법에서는 여성의 경우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읽고 쓰는 능력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했거나, 재산이 있는 자의 아내이거나 과부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으나<sup>27)</sup>, 남성의 1/20에 불과하던 여성유권자는 남성의 1/5로 증가했다. 이러한 1935년 통치법에 따라 1937년에 치러진 선거에서 8명의 여성이 일반 선거구에서, 41명이 보류의석으로 선출되었다.<sup>28)</sup> 이처럼 여성의원이 늘어난 변화는 까말라데비와 같은 도전적 정신을 가진 여성들이 출마선언을 한 것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25) Kamaladevi Chattopadhyaya (1983), *Indian Women's Battle for Freedom*, New Delhi: Abhinav Publications, p. 97.

26) Jasleen Dhamija (2007), p. 25.

27) Anupama Roy (2005), *Gendered Citizenship: Historical and Conceptual Explorations*, New Delhi: Orient Longman, p. 145.

28) K. A. Kunjakkan (2002), *Feminism and Indian Realities*, New Delhi: Mittal Publications, p. 379.

까말라데비의 낙선이 촉매제가 되어 독립 이전까지 인도의 중앙과 지방 의회에 여성의원 수는 점차 증가했다. 이러한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말라데비는 통치법에서 규정한 ‘아내’라는 규정에 대하여 “이는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결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여성 또한 인간이므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만 한다.”<sup>29)</sup>고 말하면서 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비판했다. 비록 여성의 참정권이 확대되었더라도 근본적으로 여성의 자격 조건에 ‘아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여성을 온전한 ‘개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참정권 조항에 대하여 “왜?”라는 물음표를 던진 것이다. 일부 개선되었더라도 그러한 개선이 미흡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때 “왜?”라는 물음표를 제시하는 것은 기존의 조건 혹은 제약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정신의 표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까말라데비는 1926년에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지방의회에 입후보 한 후, 인도가 독립하는 시점까지 선거에 입후보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까말라데비는 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권리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고, 여성의 참정권 확대와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를 위한 밑거름이 될 도전 정신을 발휘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3. 전인도여성위원회와 까말라데비의 비전

인도에서 여성을 위한 단체를 남성들이 주로 창립하여 이끌다가 여성들이 주축이 된 최초의 여성단체인 바라트 스트리 마하만달(Bharat Stree Mahamandal)이 1910년에 창립되었다. 1917년에는 베전트(Annie

29) Sakuntala Narasimhan (1999), p. 137.

Besant), 지나라자다사(Dhrothy Jinarajadasa), 커즌스가 주축이 되어 인도여성회(Women's Indian Association, WIS)를 설립했다. 192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여성의 참정권과 정치 참여가 주요 담론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성교육을 개혁하고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26년에 커즌스는 나이두, 보빨의 베감 사헤바(Begam Saheb of Bhopal), 까말라데비, 사랄라 레이(Sarala Ray), 라즈꾸마리 까우르(Rajkumari Amrit Kaur), 무플락슈미 렛띠 등을 모아 인도여성들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여성의 교육을 위해 전인도교육개혁협의회 창립대회를 1927년 1월 5일에 뿌나(Fergusson College, Poona)에서 개최했다. 첫 회장은 바로다 왕국의 마하라니(Maharani Chinnabai Saheb Gaekwar)가 맡았다. 이후 단체의 명칭을 전인도여성협의회(AIWC)로 바꾸어 폭넓은 여성운동을 전개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26년에 까말라데비가 지방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까말라데비를 정치에 입문하도록 이끈 커즌스는 이를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고<sup>30)</sup> 오히려 까말라데비가 전국적인 여성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셈이다. 까말라데비는 AIWC 창립 멤버였고, 제4차 연차대회까지 사무총장을 맡았으며, 독립 이전에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델리에 있는 AIWC 중앙 사무소에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호스텔은 까말라데비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AIWC 창립 초기부터 까말라데비는 사무총장으로서 여러 곳을 다니며 사회 변혁 운동을 전개하고 여성을 위한 법적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AIWC는 초등교육부터 대학교육 및 성인교육까지 교육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유아혼 제한법(Child Marriage Restraint Act of 1927)을 제정할 무렵 여성의 삶과

30) Jasleen Dhamija (2007), p. 24.

교육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유아혼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까말라데비 역시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과부가 되었으며 재혼을 하는 험난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아혼 반대 홍보에 누구보다도 큰 힘을 쏟았다.

그러나 1930년에 접어들면서 까말라데비는 간디의 소금행진에 적극참여하기 위해 AIWC의 직책을 사임했고, 소금행진에 참여함으로써 5월 16일에 체포되어 9개월 형을 선고 받고 예라와다 감옥(Yerawada Jail)에 수감되었다. 1931년에 석방되었으나 국민회의 전방 여성 조직인 세와달(Sewa Dal)의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1932년에 다시 18개월 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었다. 1934년 10월에 석방된 후에는 국민회의 내의 사회주의당(Congress Socialist Party, CSP)에서 활동했고 1936년에는 CSP 의장을 맡았다. 1939년부터 1941년 9월까지의 영국, 미국, 중국들을 방문하여 정치인들을 만났고 여성단체들과도 교류했다. 1942년에 간디의 췌인디아(Quit India: 인도에서 물러나라) 운동이 시작되자 다시 전면에 나서 활동하여 1942년 8월에 구속되었으며 1944년 초에 석방되었다.

이처럼 까말라데비는 AIWC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1930~1940년대 초까지 실질적으로 AIWC에서 활동은 미미했다. 물론 해외에서나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 AIWC 활동을 외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직접적인 직책을 갖고 활동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AIWC 관련 주요 인물들 역시 간디의 소금행진, 췌인디아 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구속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AIWC 본래의 활동 역시 초기보다는 침체된 상태였다.

1944년에 석방된 까말라데비는 그해 4월에 AIWC 회장이 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AIWC 연차대회도 미미한 상태였으나 까말라데비가 회장이 되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제 까말라데비가 1944년에 AIWC에서 한 ‘회장 연설’<sup>31)</sup> 내용을 바탕으로 그녀

의 젠더 의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비전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회장 연설에서 까말라데비가 강조한 것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① 여성의 무력함에 대해 ‘남성의 본성’ 때문이라거나 여성운동을 ‘반(反) 남성’ 운동으로 곡해하는 것 모두 잘못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회제도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데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한다. ② 여성의 파워는 근본적인 것이다. 여성은 남성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회적, 경제적 존재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③ 여성이 자신들의 가정적 의무만을 다하고 있으면, 남성에게 짐이 된다고 비난받는다. 그런데 여자가 집 밖에서 생계를 위해 일을 하려고 하면, 남성들과 경쟁하려 들고 남성들의 생계를 빼앗으려 든다고 또 비난받는다. ④ 무엇보다도 사회적 서비스에서의 훈련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것은 매우 필요한 것인데 아직 무시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수공예와 수공업을 훈련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설 내용을 통해 까말라데비는 대립적 젠더 의식을 넘어서는 평등과 공존의 젠더 의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고, 여성의 가사 노동 역시 종속된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 활동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남성들은 여성의 가사 활동과 사회생활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의 평가에 좌우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AIWC의 주요 사업으로

31) All India Women's Conference (1944), "Presidential Address", *All India Women's Conference, Seventeenth Session*, Bombay: All India Women's Conference, pp. 20-28.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당시 진행하고 있던 AIWC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시킬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까말라데비는 “여성은 삶의 신성함, 노동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사회에서만 진정한 평등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어린이에게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기회를 주고 모든 개인이 제대로 된 삶, 그들의 노동의 열매, 과학과 문화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경제·사회적 권리를 강화하고 실천하는 사회에서만 여성은 진정한 평등을 누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회장 연설에서 드러난 까말라데비의 젠더 의식과 비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당시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1944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전쟁이 아시아까지 확대되고 있던 시점이다. 그런데 AIWC 회장이 된 까말라데비는 전쟁으로 인한 여성 문제에 대해 혹은 그 여파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일반적으로 퇴보하는 현상이 있었다. (중략) 지난 50년 동안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지만 전후에는 심각한 좌절을 겪을 수 있다. (중략) 까말라데비는 AIWC 회장 연설에서 이 임박한 위협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AIWC가 앞으로 이러한 점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다.<sup>32)</sup>

비록 이러한 지적과 부정적 평가가 없지는 않았지만, 까말라데비가 회장 연설을 통해 밝힌 그녀의 생각과 비전은, AIWC 창립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 지도자들이나 회장을 역임한 여성들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과는 달리, 상당히 실질적인 것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 자립, 노동의 중요성 인식, 노동과 문화의 결과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사회에서만 여

32) ISR 54, p. 242(1944년 4월 8일).

성이 진정한 평등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실행 비전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AIWC에서 직책을 가지고 활동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까말라데비는 여성, 농민, 노동자 문제를 함께 생각했다. 까말라데비가 간디에게 깊은 영향을 받은 계기도 당시로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던 참파란(Champaran) 농민문제를 간디가 해결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까말라데비가 여성, 농민, 노동자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사회주의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며, 이러한 그녀의 비전은 독립 이후 수공예 장인과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으로 확대됨으로써 인도 수공예부흥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4. 까말라데비와 간디의 양면적 관계

까말라데비는 1919년에 간디의 연설을 들은 후 간디의 정신과 그가 추진하는 운동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이후 간디는 까말라데비의 멘토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며, 까말라데비는 간디가 추진하는 모든 운동의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부터 까말라데비와 간디의 길항관계가 시작되었다. 간디는 까말라데비가 국민회의의 운영위원으로 지명되는 것을 거부했고, 까말라데비 역시 간디의 행보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장에서는 까말라데비의 도전 정신에 미친 간디의 영향 및 서로 밀어내는 관계에 놓인 양면적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4.1. 까말라데비에게 미친 간디의 영향

간디가 까말라데비에게 미친 영향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그녀의 회고록인 『내면의 심층과 외부 세계』(*Inner Recesses Outer Spaces: Memoirs*)를 통해 살펴보자.

아프리카에서 인도로 돌아온 후, 간디는 참과란의 인디고 농장 노동자를 위한 사뜨야그라하(Satyagraha)<sup>33</sup>)를 전개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까말라데비는, 막연한 용어로만 들리던 ‘착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간디의 정신적 자세, 사회의 억압받는 계층에 대한 깊은 관심 그리고 발생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자세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아가서 까말라데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에 해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sup>34</sup>)

간디는 영국식민지 정부가 제정한 로울라트 법(Rowlatt Act)<sup>35</sup>)에 항의하기 위해, 1919년 2월 24일에 사뜨야그라하 사바(Satyagraha Sabha: 사뜨야그라하 단체)를 창립했다. 까말라데비는 이 때 개최된 군중집회에 참석했다. 이 집회에서 사뜨야그라히(Satyagrahis: 사뜨야그라하 참여자)들이 시민 불복종운동(civil disobedience)뿐만 아니라 스와데시(swadeshi), 종파 단합(communal unity), 무엇보다도 완전한 비폭력(complete non-violence)과 진리(truth)를 추구하겠다는 ‘사뜨야그라하 서약’을 했다. 간디 자신도 ‘사뜨야그라하 서약’을 하고 나서, 진지한 몇 사

33) 사뜨야그라하는 진리(satya)와 확고한 추구(āgraha)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진리 추구하고 비폭력 사상이 결합된 간디의 운동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통 받고 있는 자신들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절대로 부당한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는 비폭력 투쟁을 말한다.

34) Kamaladevi Chattopadhyaya (2014), *Inner Recesses Outer Spaces: Memoirs*, New Delhi: India International Centre Print, p. 47

35) 인도의 민족주의자들은 종전 후에 인도의 자치가 논의되기를 기대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을 지원했다. 그러나 종전 후 정치사건의 경우 배심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하는 로울라트 법을 공포했다.

람만 참석하는 적막한 모임보다는 군중들을 불러들이는 일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연설이 까말라데비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간디에 대한 까말라데비의 이해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볼 수 있다.

새로운 혜성, 이번에는 자비로운 혜성이 우리의 하늘에 솟아올랐는데, ‘난공불락의’ 대영제국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이 되고, 세계는 제국의 변방에서 붉은 태양이 지는 것을 보게 될 그런 혜성이었다. 우리 세대의 사람들에게 인도의 진정한 정치 역사는 간디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전의 폭탄 투척, 정치적 암살, 폭력 행사 등은 모두 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그것은 자포자기의 증상일 뿐이었다.<sup>36)</sup>

이처럼 간디의 사상을 지지하게 된 까말라데비는 1930년부터 기존에 맡고 있던 AIWC 사무총장 직을 사임하고 간디의 불복종 운동에 전념하는 한편, 국민회의의 풀뿌리 전방조직인 세와달을 통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그러므로 1920년대 까말라데비에게 미친 간디의 영향은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2. 간디와 까말라데비의 길항

까말라데비는 간디의 비협조, 비폭력 운동의 이념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간디의 지시를 따르지는 않았다.

---

36) Kamaladevi Chattopadhyaya (2014), pp. 46-47. 까말라데비의 회고록에는 정확한 날짜 기록이 거의 없다. 또한 자신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시기가 하린드라나트가 영국으로 떠난 후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919년부터 1920년 말까지 간디의 비협조 운동에 공감하여 사쓰야 그라하 서약을 하고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까말라데비가 간디에게 항의하고 비판한 계기는 소금행진에서 여성들을 배제한 것이었다. 비협조 운동과는 달리 소금행진은 영국식민지 정부의 법을 어기는 불법종 운동이므로 구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운동이다. 간디의 이러한 결정에 커즌스, 사로지니 나이 두 등이 민족과 국가를 위한 봉사에 남녀를 구분하여 선을 긋는 성차별은 부당한 것이므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행진은 물론 인도를 위해 조직된 어떤 시위에서도 여성 참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했다.

까말라데비는 소금행진이 시작된 후 간디가 묵고 있던 마을로 찾아가 간디를 만났다. 까말라데비가 소금행진의 여성배제에 대해 항의하자 간디는 여성에게 배정된 다른 일이 있다고 말했다. 즉 피케팅과 같은 안전한 일들을 여성들이 담당하고 구속될 우려가 있는 행진은 남성이 한다는 요지의 설명을 했다. 이에 까말라데비는 ‘간디가 시작한 운동은 인도 여성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도 여성들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기를 열망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sup>37)</sup>

까말라데비의 이러한 직설적 항의로 4월 6일부터 소금법 위반 운동에 여성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소금행진의 제1단계라 할 수 있는 단디(Dandi)의 해변까지의 행진(1930년 3월 12일~4월 5일)을 마친 후, 여성의 참여를 승인한 것이다. 이후 소금행진 주도 세력인 남성들이 투옥되자 여성들이 소금법 위반 운동을 이어갔다. 까말라데비는 이때 전면에 나서 소금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일을 주도함으로써 구속되었다.

소금행진에서 여성을 배제한 것에 대해 간디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은 간디와 까말라데비의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

37) Kamaladevi Chattopadhyaya (1983), pp. 105-106.

다. 다만 ‘직설적으로 항의’하는 방식은 당시 간디의 운동에 동참하는 다른 여성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방식이었을 뿐이다.

공개적으로 드러난 간디와 까말라테비의 길항관계의 시작은 소금 행진으로 구속되었던 까말라테비가 석방된 이후 CSP에서 활동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까말라테비가 1934년 10월에 출옥했을 때는 이미 CSP가 창립되어 있었다. 까말라테비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CSP에 적극 참여했으며, 1936년에는 CSP의 의장이 되었다.

물론 간디는 국민회의 내에 CSP가 조직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CSP 구성 자체가 ‘간디와 간디주의에 대한 반란’이라고 인식했고 서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것이며, 계급투쟁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SP에서는 ‘토지는 경작자에게’라는 슬로건을 주축으로 1936년에 농민회(Kisan Sabha)를 창립했다. 까말라테비는 CSP의 프로그램들이 탁상공론적인 사회주의가 아니라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농민회 창립에 주춧돌을 놓았고, 농민회가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sup>38)</sup>

그러나 서구의 계급투쟁이 비폭력 운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까말라테비를 비롯한 CSP 참여자들이 간디의 비폭력 정신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까말라테비와 CSP에 관련된 사람들은 비판과 반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간디에 대한 반란이라는 우려는 1936년 국민회의 운영위원회(All India Congress Committee, AICC) 위원으로 까말라테비가 천거되었으나 배제된 것에서 드러났다.

1936년에 운영위원회에 두 명의 여성을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있었

38) Jasleen Dhamija (2007), pp. 41-43.

고 이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국민회의 의장을 맡은 네루는 까말라데비를 추천했고, 간디는 사로지니 나이두를 추천했는데, 네루는 사로지니 나이두를 거부하고, 간디는 까말라데비를 거부함으로써 한 명의 여성의원도 임명되지 못했다.<sup>39)</sup> 이러한 상황에 대해 커즌스(Margaret Cousin)는 “최고의 재능을 가졌더라도 여성 사회주의자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현대 법에 의거 이혼한 경우 여성의 성별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한탄했다.<sup>40)</sup>

까말라데비를 운영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간디가 거부했던 요인은 그녀가 CSP에서 활동한 것 때문이었다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커즌스의 한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활동의 시작점과 까말라데비의 이혼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까말라데비가 1933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간디는 까말라데비와 만나 그녀의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까말라데비를 부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소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나는 그녀에게 많은 솔직한 질문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뿐이다. 나는 이혼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sup>41)</sup> 그리고 네루에게 보낸 편지에서 “운영위원회에 여성

39) Jawaharlal Nehru and S. Gopal (1972), *Selected Works of Jawaharlal Nehru*, Vol. 7. New Delhi: Orient Longman, pp. 235-23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금표 (2017), 「사랄라 데비(Sarala Devi)의 비전과 여성운동」, 『인도철학』 50, p. 133 참조 요망.

40) Jasleen Dhamija (2007), p. 44.

41) Mohandas Karamchand Gandhi (1999), *The Collected Works of Mahatma Gandhi Electronic Book 98 volumes*, New Delhi: Publications Division Government of India, 62, p.46. 이후 간디 전집의 출전은 <CWMG 권호, 페이지>로 표기하며 필요한 경우 기사 제목 혹은 연설 제목을 부연한다.

이 한 명도 들어있지 않는 것에 대한 당신의 설명은 미흡합니다. (중략) 당신은 사로지니 나이두를 배제하려 했고, 대체할 사람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중략) 여성의 배제에 관한 한 나는 그것이 당신의 자유재량이었다고 생각한다. (중략) 또한 국민회의 일부에서는 내가 까말라데비를 배제하여 어떤 여성도 임명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모든 비난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sup>42)</sup> 그리고 여성 두 명을 지명하기를 원한다면 트리둘라(Mridula)나 잠날라지(Jamnalaji)를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sup>43)</sup> 이처럼 간디는 까말라데비를 AICC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그러나 간디가 까말라데비가 맡은 모든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다. 1938년 4월에 마이소르에서 국민회의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인접한 비두라쉬와탄(Vidurashwathan)에서 지역 박람회도 개최되었는데, 두 행사가 겹치면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쏜 총탄에 30명이 사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까말라데비가 마이소르로 갔다. 그러나 마이소르에서는 까말라데비의 지역 방문을 차단시켰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간디는 “까말라데비의 진입을 막는 것은 제1급의 실책이며,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저명한 인도 여성의 방문을 차단하는 것은 마치 영국정부와 같은 위험한 관행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까말라데비를 지지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했다.<sup>44)</sup> 까말라데비의 역할과 행보를 지지하는 글을 간디가 언론에 보낸 것은 까말라데비에 대한 간디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까말라데비와 간디의 관계가 소원해진 ‘길항 관계’는 지속되었다.

42) CWMG 69, p. 52. “Letter to Jawaharlal Nehru(May 29, 1936)”.

43) CWMG 71, pp. 103-104. “Silence-Day Note to Jawaharlal Nehru(Before April 5, 1937).”

44) CWMG 73, p. 433.

마지막으로 까말라데비가 간디를 비판한 것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이 결정되었을 때이다. 까말라데비는 간디를 찾아가 ‘분리를 막지 못함’에 대해 비판했다.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그녀의 회고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그가 그렇게 창백하고 의기소침해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의 어조에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종의 절망감이 있었다. 나는 내가 쓰러질까봐 겁이 났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었어요?” 나는 거의 외치듯 말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뿌리를 개혁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이 엄청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그렇게 말만 하면 됩니다.” 나는 한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괴로워했다. 강대한 대영제국에 도전하고 영국을 약화시킬 수 있었던 사람, 그 초라해진 모습이 내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다.<sup>45)</sup>

지금까지 간디와 까말라데비의 길항을 검토해보았다. 그들의 길항이 까말라데비의 사회주의 성향 혹은 이혼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길항의 가장 근본적 요인은 두 사람 모두 원칙주의자였던 데 있다고 생각된다. 간디의 원칙주의는 이미 잘 알려진 바라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까말라데비의 원칙주의도 간디 못지않았다. 1933년에 아들 라마가 병에 걸렸을 때, 감옥에 있던 까말라데비는 가석방되었고, 이 시기에 이혼 소송을 했다. 이혼 소송이 끝나고 영국정부에서는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일종의 반성문 같은 문서에 서명을 하면 석방한다고 했을 때, 같이 가석방되었던 사람 중 일부는 서명하여 다시 구속되지 않았으나 까말라데비는 ‘자신은 범죄를 저지른 적

45) Kamaladevi Chattopadhyaya (2014), pp. 303-304.

이 없다’고 항변하고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재 구속되어 1년을 감옥에 있었다.<sup>46)</sup> 뿐만 아니라 독립을 앞 둔 시점에 구성된 ‘제헌의회’에 참여를 권유받았지만 까말라데비는 ‘자신의 정치 활동은 인도의 자유를 얻기 위한 명분으로 한 것이므로 그것이 달성되면 내가 정치 분야에서 할 일이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제헌의회 의원 선출에 참여하지 않았다.<sup>47)</sup> 또한 독립 이후 정부 요직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정계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분리 독립하게 된 후 간디는 독립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물레를 돌리며 금식기도를 했을 뿐이다. 한편으로 간디는 인도가 독립되었으니 국민회의는 그 역할을 다한 것이므로 정당으로 전환하지 말고 해체하여 민생, 사회개혁을 담당하는 무플락슈미 렛띠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독립 이후 지금까지 정당으로 남아 있으며 간디를 따르던 대부분의 국민회의 지도자들은 정계에 진출했다. 간디가 주장한 민간기구 설립과 사회 개혁 운동에 전념한 사람은 까말라데비 한 사람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까말라데비는 정당이 된 국민회의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조국이 분단된 것을 통탄하며 인도의 난민 구호에 전념했다. 나아가서 민간기구를 설립하고, 농촌과 마을을 돌며 수공예 작품들을 중심으로 공예가의 경제적 자립과 인도의 전통문화 부흥에 남은 생을 쏟았다.<sup>48)</sup>

46) Reena Nanda (2002), p. 65.

47) Jamila Brijbhushan (1976), *Kamaladevi Chattopadhyaya Portrait of a Rebel*, New Delhi: Abhinav Publications. p. 123.

48) 까말라데비를 ‘근대 인도를 만든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서술한 구하(Ramachandra Guha) 역시 까말라데비가 원했다면 의회, 내각, 대사 등의 자리에 임명되었을 것이지만 사회사업을 위해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협동조합(Indian Cooperative Union)을 설립하여 난민들이 토지를 취득하고, 집을 짓고, 소규모 가게와 공장을 세우는 것을 도왔으며, 1950년대부터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인도 수공예 부흥에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날 인도의 수공예품이 발전한 것은 까말라데비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기술했다. Ramachandra Guha (2010), *Makers*

그러므로 간디의 영향을 받고 그의 신념을 따르는 과정에서 까말라데비와 간디는 서로 밀어내는 관계에 놓이는 ‘길항’의 모습을 보였지만, 진정으로 간디의 사상을 이어가고 실천한 사람, 간디가 사망한 후에도 그가 했던 일을 ‘현실적 활동’으로 이어간 사람이 바로 까말라데비였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5. 결론

까말라데비는 인도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생활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당한 모든 것들에 대해 “왜?”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도전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까말라데비에 대한 연구 혹은 그녀의 ‘핵심’ 사상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거의 사라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까말라데비의 개인적 삶이라 할 수 있는 결혼, 이혼, 의원선거에서 볼 수 있는 도전 정신, 전국 규모의 여성단체인 AIWC의 창립과 활동 그리고 그녀에게 가장 큰 정신적 영향을 미친 간디와의 길항관계를 검토했다.

어린나이에 결혼을 한 뒤 과부가 되고, 다시 연애를 하여 재혼했으나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한 까말라데비의 개인적 삶은 그 과정마다 ‘도전적’ 젠더 의식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과부의 재혼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재혼을 결심한 것, 그러나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까말라데비는 ‘부당함’에 도전하는 정신을 드러내며 이혼을 선택했다. 한편으로는 지방의회에 여성의 입후보가 인정되자마자 도전하여, 비록 낙선했

으나 이후 인도 여성들이 의원이 되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었다. 이 역시 도전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까말라데비는 AIWC 창립 멤버 가운데 한 명이었고, 요직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간디의 비폭력 운동과 독립 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구속되는 삶을 살았다. 그 때문에 AIWC의 활동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1944년에 AIWC 회장으로서는 앞으로 AIWC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했다. 이 비전은 당시 확산되고 있던 전쟁과 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AIWC에서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여성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인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성이 자립할 수 있게 훈련시켜야 한다는 까말라데비의 비전은 독립 이후 그녀의 수공예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수공예를 통한 여성 자립과 문화 부흥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까말라데비의 정치활동의 계기는 간디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간디의 연설과 활동은, 까말라데비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킬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문제 해결을 위해 CSP에서 활동한 점, 대담한 비판적 발언, 이혼 등의 까말라데비의 행보는 간디와의 길항관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독립 이후 인도의 전통을 바탕으로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수공예를 부흥시킨 까말라데비야말로, 진정으로 간디의 사상을 이은 실천가의 한 명으로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자 료】

- All India Women's Conference (1944), "Presidential Address", *All India Women's Conference, Seventeenth Session*, Bombay: All India Women's Conference, pp. 20-28.
- Chattopadhyaya, Kamaladevi (1983), *Indian Women's Battle for Freedom*, New Delhi: Abhinav Publications.
- Chattopadhyaya, Kamaladevi (2014), *Inner Recesses Outer Spaces: Memoirs*, New Delhi: India International Centre Print.
- Gandhi, Mohandas Karamchand (1999), *The Collected Works of Mahatma Gandhi Electronic Book 98 volumes*, New Delhi: Publications Division Government of India.
- Natarajan, S. and K. Natarajan eds. (1894-1952), *The Indian Social Reformer*, Bombay: Kannada Press, Tatva Vivechaka Press.
- Nehru, Jawaharlal and S. Gopal (1972), *Selected Works of Jawaharlal Nehru*, Vol. 7. New Delhi: Orient Longman.
- Southborough Franchise Committee (1919), *Report of The Franchise Committee 1918-1919*, Calcutta: Superintendent Government Printing.

### 【논 저】

- 박금표(2017), 「사랄라 데비(Sarala Devi)의 비전과 여성운동」, 『인도철학』 50, pp. 107-147.
- 박금표(2020), 「인도 제헌의회 여성의원의 젠더 의식」, 『문화와 융합』 42(11), pp. 475-504.
- Brijbhushan, Jamila (1976), *Kamaladevi Chattopadhyaya Portrait of a Rebel*, New Delhi: Abhinav Publications.
- Chatterjee, Nandini (2010), "English Law, Brahma Marriage, and the Problem of Religious Difference: Civil Marriage Laws in Britain and India",

-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52(3), pp. 524-525.
- Dhamija, Jasleen (2007), *Kamaladevi Chattopadhyaya*, New Delhi: National Book Trust.
- DuBois, Ellen Carol and Vinay Lal eds. (2017), *A Passionate Life: Writings by and on Kamaladevi Chattopadhyay*, New Delhi: Zubaan.
- Guha, Ramachandra (2010), *Makers of Modern India*, New Delhi: Penguin Books India.
- Gull, Raashida (2014), “Of Feminism, Colonialism And Nationalism In India: Drawing A Relationship”,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s* 19(1), pp. 119-131
- Kunjakkan, K. A. (2002), *Feminism and Indian Realities*, New Delhi: Mittal Publications.
- Nanda, Reena (2002), *Kamaladevi Chattopadhyaya: A Biography*,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Narasimhan, Sakuntala (1999), *Kamaladevi Chattopadhyay: the Romantic Rebel*, New Delhi: Sterling Publishers.
- Roy, Anupama (2005), *Gendered Citizenship: Historical and Conceptual Explorations*, New Delhi: Orient Longman.
- Tharu, S. J. and K. Lalita (1991), *Women Writing in India: 600 B.C.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New York: Feminist Press at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원고 접수일: 2021년 4월 5일

심사 완료일: 2021년 5월 10일

계재 확정일: 2021년 5월 10일

ABSTRACT

---

A Study on Kamaladevi:

Challenging Gender Consciousness and Her Ambivalent Relationship  
with Gandhi

Park, Kyum-Pyo\*

This study examines Kamaladevi's life and connotations, focusing on her challenges towards gender consciousness, her involvement in women's movements, and her ambivalent relationship with Gandhi, in spite of his influence. While Kamaladevi was a child widow, she was able to remarry, although her second marriage also ended in divorce. As soon as it was made legal, she ran for office in local council elections. Her personal life embodies her challenges towards traditional patriarchy, based on human agency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She was also a founding member of AIWC and served as secretary-general, vice chairman and chairman, during which period she emphasized economic independence of women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labour. On the other hand, Kamaladevi's relationship with Gandhi has been ambivalent throughout history, despite her being deeply sympathetic to his ideas and activities since the 1920s. While she was a staunch supporter of his movements, including his opposition towards the INC's transition to a political party following Independence,

---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Ind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he was also critical of his views such as his standpoint towards Partition. After independence, Kamaladevi departed the political arena and devoted the rest of her life to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craftsmen and revival of traditional Indian culture. In conclusion, Kamaladevi's contribution to women movements and politics reflect her spirit of challenge in pursuing human rights beyond women and men's distinctions.